

충북 옥천 지역 규모 3.1 지진 관련, 원자로시설 안전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8일 11시 49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39km 떨어진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119g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하나로는 정기검사를 위해 8월 25일부터 원자로가 정지되어 있음

**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하나로 현장 안전 점검 수행(12시 28분 착수)

다만 이 지진계측값은 하나로 지진경보 설정값(0.0067g)보다는 높으나 지진경보가 울리지 않아, 그 원인 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한빛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043g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내진설계값(0.2g) 미만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지진계측값 : 한빛 0.0043g, 고리 0.0007g, 새울 0.0004g, 월성 0.0004g, 한울 0.0005g

담당 부서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시우 (02-397-7281)
		담당자	서기관	공병문 (02-397-7284)